

지방 사립대학 문현정보학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전공만족,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t a Local Private University on Major Satisfaction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정미옥 (Mi Ok Jeong)*

초 록

본 연구는 지방 사립대학 문현정보학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전공만족, 취업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파악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도에 위치한 사립대학 문현정보학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효표본 296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긍정심리자본은 전공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이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여 긍정심리자본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문현정보학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전공만족, 취업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서적,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지방 사립대학 문현정보학 전공의 전략방안을 제안하였다 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sign and validate a research model to examine the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major satisfaction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among students major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t a private university in a non-metropolitan area. A survey was conducted with students from a private university located in the Chungcheong region, and 296 valid respons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jor satisfaction, which in turn positively influenced job preparation behavior. Furthermore, major satisfaction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not only in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upport to enha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jor satisfaction,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but also in suggesting strategic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grams at private universities in regional areas.

키워드: 문현정보학전공, 긍정심리자본, 전공만족, 취업준비행동

major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jor satisfaction, job preparation behavior

* 청주대학교 문현정보학과 조교수(miok@cju.ac.kr)

■ 논문접수일자 : 2025년 5월 18일 ■ 최초심사일자 : 2025년 6월 2일 ■ 게재확정일자 : 2025년 6월 9일
■ 정보관리학회지, 42(2), 79-105, 2025. <http://dx.doi.org/10.3743/KOSIM.2025.42.2.079>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 론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급변하는 정보 환경에서, 정보는 개인에서부터 조직이나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학문의 세분화로 인하여 대량의 정보가 생산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의 속성을 우리는 정보폭발 또는 정보의 홍수라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능 정보화 기술과 분야별 신기술이 가져온 기술혁신은 사회 전반의 고용구조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23~'27)간 총 6,9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8,300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됨으로써 현재 전 세계 고용의 2%(1,400만 개)에 해당하는 일자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국가전략정보포털, 2023). 결국에는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 기술의 발전은 단순 노동직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기자와 같은 전문직으로 여겨지는 직업군의 기회까지도 위협하여 결국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소라, 2021).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청년실업률 증가로 인해 대학생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실업은 개인에게는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이나 직업을 통한 학습기회 상실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근로능력과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취업에 실패한 청년층이 느끼는 좌절감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사회 부적응 및 일탈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반적인 고용동향 분석과는 별도로 특별한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

통계청 '2023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년 사이 6만8000개 줄었고 2022년 4분기(-3만6000개), 2023년 1분기(-6만1000개)에 이어 3분기 연속 해서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2만4000개)와 공공행정(-1만4000개), 사업·임대(-1만3000개) 등에서 감소 폭이 커다(통계청, 2023). 20대 이하 청년층의 취업률 하락의 원인은 해당 연령의 인구수 감소와 아르바이트가 많은 도·소매업 일자리 증가세 약화(900개) 등으로 조사되었다(박진영, 2023). 더욱이 20대 이하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이 힘들어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인협회의 '2023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해보다 취업이 어렵다고 답한 청년이 30.3%,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답한 청년이 25.9%로 높게 나와 대졸 채용시장 구직난이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들은 경력직 선호에 따른 신입 채용 기회의 감소가 20대 취업이 어려운 주요이었으며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 확보의 어려움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청년층 고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충분한 일 경험을 통해 업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직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한국경제인연합회, 2024). 이 문제는 조기 진로 선택을 통한 장기간의 직무 교육과 일경험 지원, 신입 사원 직무 능력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기업의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전문 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대학 및 전공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전공선

택에 관한 선행연구(김경리, 이현주, 2022; 정경숙, 2025)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할 때 취업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학생들은 대학과 전공선택 시 학문적 이론보다 취업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에 대응하여 진로탐색과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적극 지원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보다는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헌정보학전공 학생들은 입학 후 전공 교과목 수업 이수와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논문은 있으나(김윤민, 이선일, 2021; 김주아, 2022; 오우진, 2023; 윤성혜, 송선희, 2020; 최경환, 정명규, 2025) 문헌정보학에 대한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전공만족, 취업준비행동 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심리적인 만족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대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밀해준다.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 긍정심리자본이 전공만족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각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문헌정보학 전공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취업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전공만족과 취업준비행동

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학부나 학과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에는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경쟁력 있는 학과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며,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긍정심리자본

심리학에서는 부정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는 연구 현상을 반성하며 사람들이 삶과 일터에서 자신의 강점을 키우고,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을 탐구하는 ‘긍정심리학’을 태동시켰다. 이러한 긍정심리학은 조직 운영과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조직연구 분야에 응용되기 시작하였다. 조직연구 분야에서 긍정심리학의 응용은 크게 긍정조직학(POS,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과 긍정조직행동(POB,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의 두 가지 흐름으로 발전되고 있다(신현희, 장수현, 2022). 긍정조직학은 조직과 조직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특성과 과정 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는 반면, 긍정조직행동은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 측정과 개발이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의 강점과 심리적 역량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긍정조직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Luthans와 그의 동료들은 긍정심리에 관한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개인이 지

닌 긍정적 심리를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과 같은 과거 자본영역을 확장하여 긍정심리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남미희, 정명규, 2024).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에서는 개인의 개발 가능한 긍정적인 심리상태로 '개발 가능성'과 긍정적 성과를 도출하는 '자본'으로서의 개념이 강조된다. 조직의 인적자원이 지식과 기술 외에 얼마나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는가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Avey & Holley, 2024).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로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낙관주의(optimism), 회복탄력성(resiliency) 등 4개의 역량이 결합된 상위 개념이다.

2.1.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환경에서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인지적 지원, 동기 등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자신감)이나 믿음을 말한다. 자기효능적인 사람은 다음 5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1) 자신을 위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힘든 일을 선택한다. (2) 도전을 환영하고 성공시킨다. (3) 스스로 동기를 부여한다. (4)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투자한다. (5) 어려움 또는 난관에 직면할 때 참고 이겨 낸다. 이러한 특징들은 자기효능감의 수용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을 독립적으로 발전시키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게 하며, 장기적인 외부압력을 최소화한다. 그들은 어려운 일을 찾아내어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도전하여 소극적인 생각을 떨쳐 버린다(지희진, 2025; Wray,

et al., 2022).

2.1.2 낙관주의

낙관주의는 현재와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낙관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기대치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연 외, 2025). 미래에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현실적인 낙관주의이다. 자기훈련(self-discipline)과 과거의 사건 분석,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필요한 계획, 예방적 주의 등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Chu et al., 2022).

2.1.3 희망

희망은 성공하려는 의지, 목표를 향한 에너지,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한 경로와 계획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인지 기반의 긍정적 동기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수행의지(willpower)와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pathways)에 대한 관점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개념이다. 수행의지는 특정 상황에서 성공을 이루려는 개인의 동기를 의미하며, 경로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을 가리킨다(전혜정 외, 2025). 희망이 목표에 대한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유사하지만, 목표가 성취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높은 수준의 희망을 지닌 개인은 더 큰 목표를 향한 에너지를 발휘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체 경로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hu et al., 2022).

2.1.4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이란 단순히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평형점을 넘어서는 성장을 지향하며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 그리고 그 역경마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또한 역경, 불확실성, 위험 또는 실패에 직면했을 때 좌절로부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거나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능력이나 의지를 의미한다. 복원력의 유용한 요소로는 인지적 능력, 기질, 긍정적 자기인식, 신뢰, 삶에 대한 긍정적 견해, 감정적 안정, 자기 규제, 유머 감각 등이 있다(Tambun & Tondok, 2024).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경험이나 외부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 회복탄력성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의 능동성이 주로 강조되는 희망이나 낙관주의와는 구별된다(전혜정 외, 2025).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측정, 개발, 관리할 수 있는 상태적 특성으로 간주되면서 관련한 실증분석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성원의 강점, 잠재력 등에 관심을 두는 긍정적 조직행동 접근이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으로 자리 를 잡으며, 긍정심리자본 연구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의 메타분석 연구 중 하나인 Newman et al.(2014)는 10년간의 기준 문헌 분석을 통해 개인, 팀, 조직 차원에서의 긍정심리자본의 선행변수, 매개·조절변수, 종속변수를 도출을 기반으로 메커니즘을 분석 하여 심리자본연구를 위한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변수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수준의 연구를 살

펴보면 조직 구성원의 바람직한 태도와 관련하여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사람은 미래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으며, 일에 관련된 다양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심리상태는 개인들이 더 큰 노력을 하고 자신의 직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의 사명에 대한 헌신, 창의적 성과, 문제해결 및 개인 차원에서의 혁신 등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긍정심리자본이 조절 변수로서 다른 변수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신현희, 장수현, 2022; 유영서 외, 2023; 최예인 외, 2025) 대학생들의 전공만족, 진로적응감, 학업소진, 취업준비행동에 대하여 긍정심리자본은 구성의 태도, 성과, 결과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전공만족

전공만족도(major satisfaction)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는 과정이며, 전공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의미한다(신태화, 2023). 전공만족은 직업 인에 대한 직업만족과 같은 의미이며, 대학생이 전공수업에 대한 평가 및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Nauta, 2007). 전공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Nauta(2007)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직업인의 직업 만족과 동일한 의미이며, 학생들이 전공 분야를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만족으로 정의하였다. Schenkenfelder et al.(2020)은 전공 학과에 대한 평가는 학습자가 소속된 학과의 전공 교과목에 대한 기대, 진로 및 직업 준비집단과의 비교 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심리적 결과물로 정의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 기술, 정보 등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의미하였다. 류인평 외(2019)는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이 속한 학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판단의 결과이다. 송정명과 유동현(2018)은 전공만족도를, 학생들이 전공을 접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즐거움과 즐업 후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함께 형성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전공만족도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볼 때, 전공만족도는 인지적, 정서적, 일반적인 측면의 전공 만족 등 각각의 부분들을 강조하여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전공선택은 성별, 학업 성적, 적성, 지능, 재능 등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사의 영향, 사회적 변화, 교육 제도, 산업 구조 등 외부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된다(Gerçek & Elmas-Atay, 2024).

일반적으로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전공에 더 집중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미래에도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전공만족도는 크게 일반적인 전공만족, 진로에 대한 만족,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류인평 외, 2019; 송정명, 유동현, 2018). 먼저, 학과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은 학과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말하며, 진로에 대한 만족은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감정으로 개인요인(성격, 정서적 특성), 환경요인(직무나 효능감과 관련된 환경적 지지, 자원, 장벽), 사회인지적 요인(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혹은 근로조건) 등이며, 교육자 만족은 교수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반응과 감정을 말한다.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수업 중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별적인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학과는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폭넓은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게 되며, 이와 같은 학습 과정을 통해 각 교과목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형성하게 된다.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전공만족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이는 전공수업에서 제공되는 교육 내용의 적절성 및 학문적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의미한다(Wang et al., 2025).

2.3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은 성공적인 직업 선택과 경력을 형성하기 위해 개인은 직업에 대한 가치 탐색, 선택에 대한 평가, 다양한 자원의 활용, 직업 세계의 다양성 경험, 관심 분야 종사자와의 면담 등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며, 이는 취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의 활동이다(Hackett, 1993). 대학생의 취업 준비 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거나 희망하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필

요한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특히 양진희와 김봉환(2008)의 연구에서 정의된 '진로준비행동'의 개념과 비교하면 취업준비행동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취업준비행동은 진로준비행동의 몇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즉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은 진로 탐색의 초기 단계로, 개인의 흥미, 가치, 능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도구를 갖추는 활동으로, 교육과 훈련, 기술 습득 등의 준비 과정을 의미한다. 필요한 교재 및 기자재를 구입 함으로써 전반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것으로 본다. 세 번째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끊고 있다. 취업준비행동은 진로준비행동에서 보는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진로의 개념보다는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당면한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다(Evans, 2017). 즉 정보검색을 통해서 취업이 가능한 직업과 회사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과정이고, 목표가 설정이 되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격과 과정들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는 준비과정이 해당된다.

정확한 정보 수집과 자료 분석을 위해 전문 취업센터나 주변인과의 상담을 받고, 인턴십 등 자신이 원하는 일과 관련된 경험을 쌓는 등의 노력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취업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노력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자신이 목표로 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시험과 면접을 진행하는 채용 절차의 모든 행동적 차원까지 맑아 나가는 것을

취업준비행동이라 할 수 있다(Gurley, 2018). 조은희와 문화진(2019)은 대학생들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활동 기울이는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에 필요한 정보의 탐색을 포함하여, 구직을 위한 다양한 준비활동과 전략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개인이 직업을 획득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취업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동적 측면이라 할 수 있으며, 취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직무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자격을 계획적으로 개발·준비해 나가는 일련의 목표 지향적 행동을 취업준비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신태화, 2023).

2.4 긍정심리자본, 전공만족, 취업준비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신규리와 손영미(2020)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4년제 대학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여가스포츠 참여와 삶의 의미, 긍정정서, 긍정심리자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여가스포츠 참여는 삶의 의미, 긍정정서, 긍정심리자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인 낙관주의의 연구는 정연 외(2025) 연구에서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준비행동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더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김동일 외(2024)는 대학생의 진로자기이해, 진로자기효능감, 진로낙관성에 따라 잠재집단을 확인하였으며, 각 집단별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준비행동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잠재집단에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진로자기효능감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신현희와 장수현(202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희망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유영서 외(2023)는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장벽과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복탄력성이 진로장벽을 극복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영향을 미치며 전공의 만족은 대학생활의 적응척도로 연결된다. 선행연구에서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Jaime, 2023). 따라서 입학 전 진로를 설정하여 희망했던 학과에 입학할 경우 자신과 학교를 동일시하며 학교와 전공에 관심이 증가하며, 학교생활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학교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tarkey et al., 2009). 전공 불만족인 학생들의 경우 전반에 걸쳐 학교생활과 학업 부적응의 상태(신태화, 2023)를 보였으며, 매개변수인 전공만족도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나 전공만족도는 개인적 동기와 진로결정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홍보람과 김혜정(2024) 연구에서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송정명과 유동현(2018), 류인평 외(2019), Wang et al.,(2025)의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로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행동과 진로장벽, 전공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선행 논문을 보면 4년제 대학의 모든 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준비행동과 진로장벽,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미미한 설정이다. 다만 최근의 선행 연구들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특정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심선숙, 정혜영, 2023). 이에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 요인(교과만족, 수업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요인)을 통하여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과 취업 특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과만족, 수업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을 연구에 밝혔다(장로사, 2023). 취업준비행동과 진로장벽,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에 대한 불안함이 과도한 취업불안을 유발(조은희, 문화진, 2019)하며 졸업 후 진로가 확실하지 않아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동기유발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aroudi et al.,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학생들을 대상

으로 취업준비행동,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요 한 요소로 파악하고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하위요인으로 한정하였다.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 (2) 지방 사립대학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은 전공만족과 취업준비행동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표 1〉 참조).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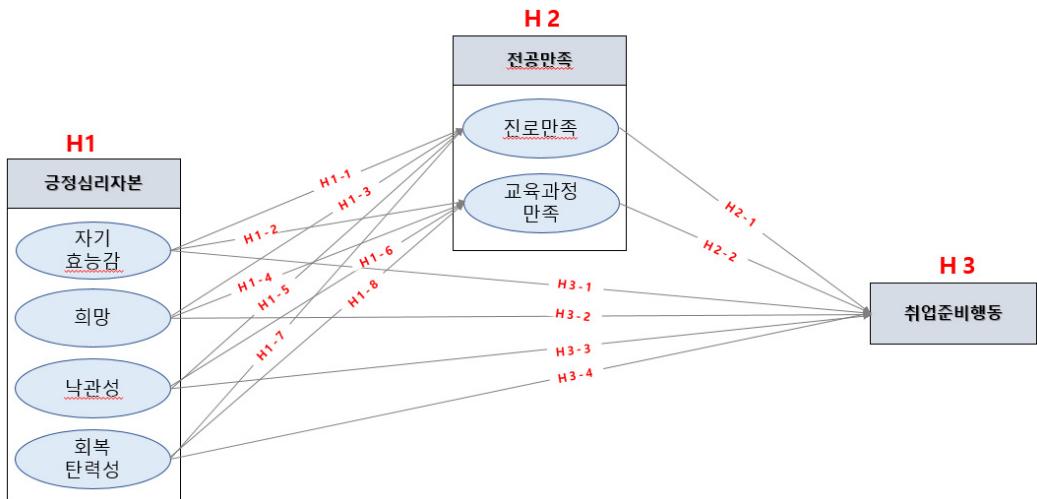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지방 사립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전공 만족도와 취업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에 따라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 (1) 지방 사립대학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은 긍정심리자본과 전공만족 사이에는

3.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5문항, 독립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을 묻는 16문항, 매개변인인 전공 만족을 묻는 10문항, 종속변인인 취업준비행동을 묻는 10문항의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매우그렇다(5점)-전혀그렇지않다(1점)으로 사용된 측정도구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연구가설

가설		내용
H1	H1-1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진로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교육과정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긍정심리자본(희망)은 전공만족(진로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긍정심리자본(희망)은 전공만족(교육과정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긍정심리자본(낙관성)은 전공만족(진로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6	긍정심리자본(낙관성)은 전공만족(교육과정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7	긍정심리자본(희보탄력성)은 전공만족(진로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8	긍정심리자본(희보탄력성)은 전공만족(교육과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H2-1	전공만족(진로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전공만족(교육과정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H3-1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긍정심리자본(희망)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긍정심리자본(낙관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4	긍정심리자본(희보탄력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2〉 측정도구 구성

변수	문항 수	측정 문항	출처
긍정 심리 자본	자기 효능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일을 잘 해낼 수 있음 •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음 • 목표를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함 •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Newman et al.(2014), 신현희와 장수현(2022), 유영서 외(2023), Avey & Holley(2024), 최예인 외(2025)
	희망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음 • 중요한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냄 •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나아감 •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해 나감 	
	낙관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함 삶을 살 것임 • 실패는 일시적이며,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음 •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절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음 • 웃음과 여유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함 	
	희복 탄력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겨냄 • 힘든 일을 겪어도 빠르게 회복함 • 어려울 때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이 있음 • 갈등이 생기면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함 	
전공 만족	진로 만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하는 학과는 인기학과에 속함 • 전공하는 학과를 즐겁겠다는 배경이 사회생활에 유리 • 전공하는 학과는 직업선택에 도움이 됨 • 나의 전공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함 • 전공학과 교과 내용에 흥미와 가치를 느낌 	송정명과 유동현(2018), 류인평 외(2019), Gerçek & Elmas-Atay(2024), Wang et al.(2025)
	교육 과정 만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과목에 대한 이론 및 실기수업 난이도에 만족 • 수업 방식이 나와 잘 맞다고 생각 • 수업 보조자료를 활용하여 흥미있는 수업을 진행 • 교수-학생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함 •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교수의 조언을 들음 	
취업준비행동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학점관리를 하고 있음 •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음 •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어학 공부를 하고 있음 • 취업관련 교과목 또는 전공관련 과목을 수강함 • 이력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력을 준비하고 있음 	조은희와 문화진(2019), 신태화(2023), Gurley(2018), Baroudi et al.(2022)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로에 관한 척도로서 신현희와 장수현(2022), 유영서 외(2023), 최예인 외(2025) 그리고 Ave와 Holley (2024)가 사용한 척도를 이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및 회복탄력성의 총 4개 요인으로 각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공만족은 인지적, 정서적, 일반적인 측면의 전공 만족 등에 관한 척도로서 송정명과 유동현 (2018), 류인평 외(2019), 신태화(2023) 그리고 Wang et al.(2025)이 사용한 척도를 이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전공만족의 하위변인은 진로만족과 교유과정만족의 2개 요인으로 각각 5문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취업을 위한 준비 행동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취업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조은희와 문화진(2019), 신태화(2023) 그리고 Gurley(2018), Baroudi et al.(2022)가 사용한 척도를 이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취업준비행동은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지방 사립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전공만족,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의 모집단은 경기도와 충청도 대학교의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3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고 350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으며, 성실히 모든 문항에 응답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296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7.0 통계패키지와 AMOS 1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신뢰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행되었다.

3.4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설문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표 3〉 분석 방법

구분	내용	통계기법
기초통계분석	인구통계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타당성 분석	주성분분석, 베리맥스 회전에 의한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Cronbach's α 계수
	변수간 관련성	Person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	가설	구조방정식 분석

값을 검토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구성개념의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통성 값이 0.5 이하인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은 KMO 측도를 통해 확인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정미옥, 2024).

3.4.1 외생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외생변수로서 독립변수의 긍정심리자본(자

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KMO 측도는 .849로 높은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chi^2 = 1232.217^{***}$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3개의 측정항목, 희망은 3개의 측정항목, 낙관성은 3개의 측정항목, 회복탄력성은 2개로 범주화되었다.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의 요인은 70.891%의 요인 설명력을 보였다.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요인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자기효능감은 .768, 희망은 .756, 낙관성은 .691, 회복탄력성은 .737로 적합한 신뢰성을 보였으며,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외생변수(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결과

항목	요인				Communality	Cronbach's α 계수
	자기 효능감	희망	낙관성	회복 탄력성		
(PPC_S1)	.791	.209	.128	.344	.804	
(PPC_S2)	.834	.144	.166	.219	.791	.768
(PPC_S3)	.638	.266	.379	-.204	.663	
(PPC_H1)	.146	.786	.233	.051	.696	
(PPC_H2)	.103	.809	.046	.264	.738	.756
(PPC_H3)	.377	.676	.202	.143	.661	
(PPC_O1)	.168	.090	.700	.370	.663	
(PPC_O2)	.209	.113	.738	.252	.665	.691
(PPC_O4)	.132	.214	.725	.017	.589	
(PPC_R1)	.181	.211	.438	.695	.752	
(PPC_R2)	.154	.197	.149	.832	.777	.737
eigen-value	1.168	1.009	4.749	.871		
% of Variance	18.607	18.322	18.717	15.244		
Cumulative %				70.891		
KMO 측도				.84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 = 1232.217^{***}$		

* $p < .05$, ** $p < .01$, *** $p < .001$

3.4.2 내생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도

내생변수 전공만족(진로만족, 교육과정만족),

취업준비행동의 탐색요인 분석결과, KMO 측도는 .781로 높은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chi^2 = 1216.646^{***}$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진로만족은 3개, 교육과정만족은 3개, 취업준비행동은 4개의 측정항목으로 범주화 되었다. 내생변수는 69.107%의 만족할 만한 요인 설명력을 나타냈다. 각 요인의 Cronbach's *a* 계수는 진로만족 .830, 교육과정만족 .835, 취업준비행동 .724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에 대한 세부 결과는 〈표 5〉와 같다.

4. 연구결과

4.1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설문조사로 수집된 데이터(N=296)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자가 196명(70.6%), 연령분포는 22~23세가 112명(37.8%), 학년은 3학년이 98명(33.1%), 전공 선택동기로는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가 150명(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졸업후 취업이 용이해서가 53명(17.9%), 고교성적을 고려해서는 46명(15.5%),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42명(14.2%), 기타 5명(1.7%)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5〉 내생변수 전공만족(진로만족, 교육과정만족),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항 목	요 인			Communality	Cronbach's <i>a</i> 계수
	진로만족	교육과정만족	취업준비행동		
(MS_C1)	.780	.220	.248	.718	.830
(MS_C2)	.782	.181	.356	.772	
(MS_C3)	.875	.159	.019	.791	
(MS_E1)	.147	.821	.151	.719	.835
(MS_E2)	.293	.833	.129	.796	
(MS_E3)	.129	.840	.033	.723	
(JPB_1)	.212	.032	.791	.672	.724
(JPB_2)	.241	-.018	.706	.557	
(JPB_3)	-.010	.419	.633	.577	
(JPB_4)	.105	.139	.746	.586	
eigen-value	1.247	4.080	1.584		
% of Variance	22.223	23.766	23.113		
Cumulative %			69.107		
KMO 측도			.78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 = 1216.646^{***}$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

내용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87	29.4
	여자	196	70.6
연령	20 ~ 21세	87	29.4
	22 ~ 23세	112	37.8
	24 ~ 25세	85	28.7
	26 ~ 27세	12	4.1
	27 이상	0	0.0
학년	1학년	85	28.7
	2학년	43	14.5
	3학년	98	33.1
	4학년	70	23.6
전공선택동기	고교성적을 고려해서	46	15.5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150	50.7
	졸업 이후 취업이 용이해서	53	17.9
	주변 지인분들의 권유로	42	14.2
	기타	5	1.7
합계		296	100.0

4.2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변수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측정변수(자기효능감 1개, 희망 1개, 낙관성 1개, 회복탄력성 2개, 진로만족 2개, 교육과정만족 2개, 취업행동준비 2개)는 제거하였다. 이는 잠재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수 중 다중 상관치(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가 낮은 항목들을 제외한 것이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항목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t\text{값} \geq 2.0$), 이에 따라 집중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Steenkamp & Van Trijp, 1991). 또한, 요인의 대표성을 검토하기 위해 복합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산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요인에서 복합신뢰도(0.70 이상)와 평균분산추출값(0.50 이상)이 권장 기준을 상회하여, 각 요인이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별타당성은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AVE)이 다른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클 때 확보된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 제곱값이 해당 구성개념의 AVE보다 낮아 판별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가설검증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전공만족,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설정한 가설 H1-1 ~ H1-8,

〈표 7〉 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복합신뢰도, 평균분산추출

구분	요인명	변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 값	CR	AVE			
긍정 심리 자본	자기효능감	PPC_S1	0.849	0.063	13.963	0.852	0.664			
		PPC_S2	0.798	-	-					
		PPC_S3	0.571	0.06	9.579					
	희망	PPC_H1	0.632	0.084	10.161	0.832	0.625			
		PPC_H2	0.715	0.086	11.379					
		PPC_H3	0.783	-	-					
	낙관성	PPC_O1	0.748	0.093	10.806	0.748	0.504			
		PPC_O2	0.736	-	-					
		PPC_O4	0.52	0.112	7.883					
	회복탄력성	PPC_R1	0.867	-	-	0.773	0.632			
		PPC_R2	0.701	0.08	11.768					
전공 만족	진로만족	MS_C1	0.696	0.065	11.019	0.845	0.654			
		MS_C2	0.964	-	-					
		MS_C3	0.621	0.062	9.918					
	교육과정만족	MS_E1	0.515	0.059	6.668	0.893	0.765			
		MS_E2	1.198	-	-					
		MS_E3	0.562	0.064	6.879					
	취업준비행동	JPB_1	0.832	-	-	0.745	0.5			
		JPB_2	0.582	0.111	8.859					
		JPB_4	0.621	0.098	9.377					
적합 지수	χ^2	df	p	CFI	GFI	IFI	NFI	AGFI	RMR	RMSEA
	357.149	140	.001	0.915	.892	0.917	0.87	0.838	0.057	0.073

〈표 8〉 판별타당성 분석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	진로만족	교육과정만족	취업준비행동
자기효능감	0.664	0.444	0.440	0.377	0.120	0.016	0.196
희망	0.666	0.625	0.339	0.311	0.159	0.169	0.266
낙관성	0.663	0.582	0.504	0.623	0.057	0.070	0.127
회복탄력성	0.614	0.558	0.789	0.632	0.182	0.119	0.296
진로만족	0.347	0.399	0.238	0.427	0.654	0.128	0.334
교육과정만족	0.126	0.411	0.265	0.345	0.358	0.765	0.031
취업준비행동	0.443	0.516	0.357	0.544	0.578	0.177	0.500

(주) 대각선 셀의 숫자: 평균분산추출(AVE), 대각선 아래 상관계수(r), 대각선 위 상관계수 제곱값(r^2)

H2-1, H2-2, H3-1 ~ H3-4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5와 AMOS1.6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표 9〉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설 H1-1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은 진로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경로계수가 -0.029(t=0.243)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표 9〉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계수		t 값(p)	가설 검정				
H1-1	자기효능감	-->	진로만족	-0.029	-0.243	가설 기각				
H1-2	자기효능감	-->	교육과정만족	0.443	4.681***	가설 채택				
H1-3	희망	-->	진로만족	0.414	3.74***	가설 채택				
H1-4	희망	-->	교육과정만족	0.554	6.18***	가설 채택				
H1-5	낙관성	-->	진로만족	0.708	3.353***	가설 채택				
H1-6	낙관성	-->	교육과정만족	0.260	2.103*	가설 채택				
H1-7	회복탄력성	-->	진로만족	0.839	4.345***	가설 채택				
H1-8	회복탄력성	-->	교육과정만족	0.522	4.265***	가설 채택				
H2-1	진로만족	-->	취업준비행동	0.307	2.792**	가설 채택				
H2-2	교육과정만족	-->	취업준비행동	0.212	2.605**	가설 채택				
H3-1	자기효능감	-->	취업준비행동	-0.066	-0.502	가설 기각				
H3-2	희망	-->	취업준비행동	0.402	2.608***	가설 채택				
H3-3	낙관성	-->	취업준비행동	-0.355	-1.432	가설 기각				
H3-4	회복탄력성	-->	취업준비행동	0.592	2.27*	가설 채택				
적합 지수	χ^2 352,033	df 140	p .001	CFI 0.917	GFI 0.895	IFI 0.919	NFI 0.872	AGFI 0.842	RMR 0.063	RMSEA 0.072

* $p < .05$, ** $p < .01$, *** $p < .001$

가설 H1-2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은 교육과정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443($t = 4.681***$), H1-3 긍정심리자본(희망)은 진로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414($t = 3.74***$), H1-4 긍정심리자본(희망)은 교육과정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554 ($t = 6.18***$), H1-5 긍정심리자본(낙관성)은 진로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708($t = 3.353***$), H1-6 긍정심리자본(낙관성)은 교육과정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26($t = 2.103*$), H1-7 긍정심리자본(회복탄력성)은 진로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839($t = 4.345***$), H1-8 긍정심리자본(회복탄력성)은 교육과정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522($t = 4.265***$)로

나타나 가설 H1-2 ~ H-8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은 전공만족에 영향을 주었다. 세부영역에서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은 진로만족과 교육과정만족에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유영서 외(2023), 최예인 외(2025), Ave와 Holley(2024) 그리고 Wang et al.(2025)의 연구 등과 맥락을 같이한다.

H2-1 전공만족(진로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307 ($t = 2.792**$), H2-2 전공만족(교육과정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212($t = 2.605**$)로 나타나 가설 H2-1과 H2-2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은 전공만족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학습활동인식(내용이해력)은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진로만족과 교육과정만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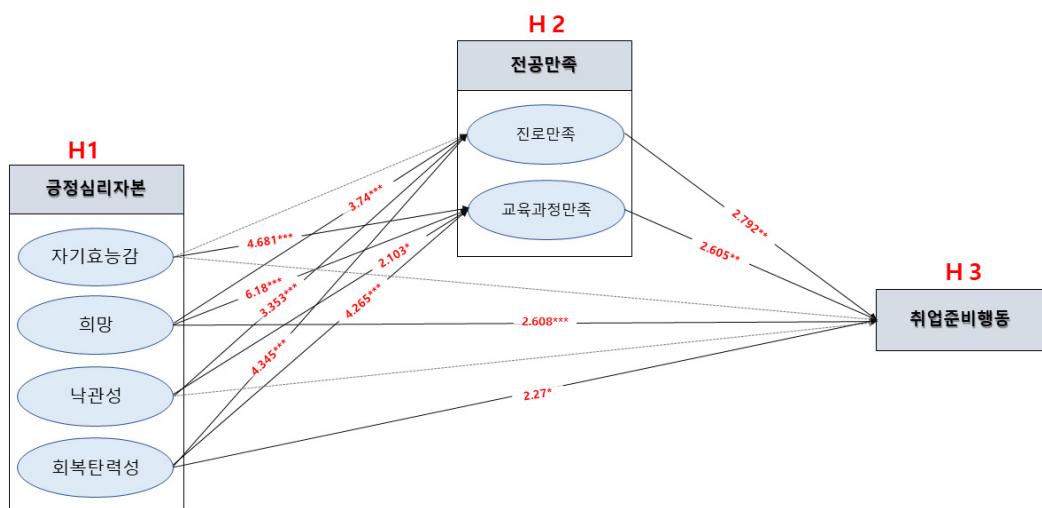
취업준비행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유영서 외(2023), 최예인 외(2025), Ave와 Holley(2024), Gurley (2018) 그리고 Baroudi et al.(20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설 H3-1과 H3-3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분석 결과, 경로계수가 각각 $-0.066(t=-0.502)$, $-1.432(t=2.27^*)$ 로 나타나 가설 H3-1과 H3-3은 기각되었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을 강화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희망과 회복탄력성은 취업준비 문제에 있어 중요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3-2 긍정심리자본(희망)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402(t=2.608^{***})$, H3-4 긍정심리자본(회복탄력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592(t=2.27^*)$ 로 나타나 가설 H3-2과 H3-4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송정명과 유동현(2018), 류인평 외(2019), Wang et al.(2025) 연구 등과 맥락을 같이한다.

결과적으로 지방 사립대학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전공만족과 취업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세부영역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낙관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공만족이 긍정심리자본과 취업준비행동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였고 긍정심리자본이 전공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에 대한 만족은 긍정심리자본이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헌정보학과 대학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강점을 살려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며, 미래 사서로서 높은 성과를 달성해야 하며, 낙관성은 필수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적이나 대학생활 적응을 돋고, 절망과 비관 대한 민감도를 낮추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극복에 초점을 맞춘 긍정심리자본이 분명하였고, 학습과정에서 교육의 인식과 전공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반영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의 하위 요인인 진로만족과는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별, 성별 차이 등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의 긍정심리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전공에 대한 만족과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제언

21세기 들어 일부 학자들은 기존 심리학에서 간과되었던 두 가지 과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인 긍정심리학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이 더욱 행복하고 생산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돋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긍정심리자본을 형성할 때 긍정성을 대학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의 개념과 이론에 바탕을 두며, 대학생들의 전공과목을 통해 긍정적 행동 분야에 연구초점을 맞추어 미시적 수준(microlevel)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좀 더 발전되고 개선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방 사립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전공만족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교과학습 욕

구(needs)와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취업 방향성 및 가치를 재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희복탄력성)은 전공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수록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낀다고 볼 수 있다. 학과와 학교차원에서 자기효능감과 긍정적인 시각을 길러주는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의 내면적 심리 요인인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에 주목함으로써 현재 대학생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진로와 미래에 대한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였다. 긍정심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본인의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돋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보다 폭넓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긍정심리자본을 강화시킴으로써 전공 이탈과 진로에 대한 방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며 전공만족을 통한 적극적인 대학생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온 진로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긍정심리자본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학과에 대한 만족과 적응, 진

로준비를 통한 전공분야로의 취업이 원활한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제도나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대학은 학생 모집에 더욱 어려움을 겪으면서 낮은 취업률을 동반하는 힘든 실정이다. 학과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진로분야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취업준비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의 전공만족을 높이고 전공분야에 대한 적응을 돋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을 통한 전공에 대한 만족이 적극적인 취업준비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문헌정보학과 와 학교차원에서 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켜 전공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 사립대학의 입시와 취업경쟁 속에서 학과와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전공만족(진로만족, 교육과정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긍정적인 관점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는 기존의 주입식 정보 전달체계인 수동적 교육방식에서 나아가 자신감과 긍정심리를 발달시키는 능동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실무적인 교과목이 많은 전공에서는 스스로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헌정보학관련 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보

다는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자부심, 교수진과의 관계를 통한 전공에 대한 신뢰감 형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학과 운영 프로그램 구성 시 외부 홍보활동에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키거나 문헌정보전공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만남을 적극 활용하고, 교수진과 선후배와의 소통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실무중심의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전공만족은 경력계획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신 멀티미디어 시설과 같은 실습장비의 교육환경을 갖추는 것은 물론 전공지식과 현장 경험에 풍부한 유능한 교수진을 확보하여 다양한 도서관에 따른 채용 전략과 산업체별 요구에 맞는 실무중심의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론과 실무가 융합된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학업에 대한 성취감을 제고할 수 있다. 이에 취업동아리 활동 및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개발은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자발적인 경력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전공 몰입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긍정심리자본을 활용하여 학과생활에 적응하고 이를 통한 만족은 원활한 취업준비행동으로 이어지므로 전공 관련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구성 시 학생 개개인의 긍정심리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문헌정보전공에 대한 만족과 적응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전공분야에서의 취업과 성공적인 진출을 돋는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전공만족, 취업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서적,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불확실한 고용환경과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긍정심리자본을 강화시키는 교육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준비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속에서 올바른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으면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응이 순조로우며, 본인이 목표한 분야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제도적 차원에서 긍정심리자본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학과생활에 대한 만족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생들이 올바른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취업준비계획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며 성공적으로 도서관 분야에 진출하여 미래의 유능한 사서 및 정보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전공만족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선행

연구의 요인 및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전공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전공만족, 취업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사립대학 문헌정보학 전공의 전략적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계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수집에 있어 지방의 사립대학의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자료 수집 과정에서 지역적 분포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신입생과 졸업을 앞둔 4학년 등 학년에 따라 진로준비에 대한 태도와 대응이 다를 것으로 사료되며, 2년제와 4년제 학제간의 교육과정에 의한 차이점을 분석해 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으로 대상을 더욱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보다 실질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 후 학생들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 과정을 비교하여 분석해 본다면 학과 운영프로그램이나 진로교육에 보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이 내면적 요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심리에 집중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취업준비행동의 일부 측정문항이 현재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

어 보인다.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요즘 세대의 정보획득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문항들을 현실감 있게 수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년별에 따라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구와 목표설정 방식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측정문항을 세분화하여 잠재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설명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장된 모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가전략포털 (2023).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 2023. 출처: <https://nsp.nanet.go.kr/>
- 김경리, 이현주 (2022). 대학생 전공선택동기 유형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교양교육연구*, 16(2), 453-465. <https://doi.org/10.46392/kjge.2022.16.2.453>
- 김동일, 박인후, 정건 (2024). 대학생의 진로자기이해, 진로자기효능감, 진로낙관성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유형별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교육연구논총*, 45(3), 291-315. <http://doi.org/10.18612/cnujes.2024.45.3.291>
- 김소라 (202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한 인식 유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1), 528-542. <https://doi.org/10.5392/JKCA.2021.21.11.528>
- 김윤민, 이선일 (2021). 외식 관련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가 전공만족도와 취업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7(1), 157-165. <https://doi.org/10.20878/cshr.2021.27.1.014>
- 김주아 (2022). 만화애니메이션 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전공선택 동기와 직업가치관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4(11), 335-346. <https://doi.org/10.33645/cnc.2022.11.44.11.335>
- 남미희, 정명규 (2024). 태권도 전공생들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불안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97, 229-240. <https://doi.org/10.51979/KSSLS.2024.07.97.229>
- 류인평, 강동원, 이재곤 (2019). 대학생의 교육서비스품질이 전공만족, 전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44(3), 81-106. <https://doi.org/10.32780/ktidoi.2019.44.3.81>
- 박진영 (2023.11.28.). [기자의 눈] 고착화되는 20대 이하 청년 취업률 하락… 원인과 해결 방안은?. *뉴스투데이*. 출처: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31128500074>
- 송정명, 유동현 (2018). 체육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에 따른 전공만족, 학습몰입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7(2), 209-222. <https://doi.org/10.35159/kjss.2018.06.27.2.209>
- 신규리, 손영미 (2020).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여가스포츠 참여의 효과검증: 삶의 의미와 긍정정서를 중심으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4(3), 127-139.

- http://doi.org/10.26446/kjlrp.2020.9.44.3.127
- 신태화 (2023). 외식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만족도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식경영학회 외식경영연구, 26(2), 239-259. <https://doi.org/10.47584/jfm.2023.26.2.239>
- 신현희, 장수현 (2022).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3(2), 321-329. <http://doi.org/10.15207/JKCS.2022.13.02.321>
- 심선숙, 정혜영 (2023).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7(12), 2178-2186.
<https://doi.org/10.33097/JNCTA.2023.07.12.2178>
- 양진희, 김봉환 (2008).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2), 57-71.
- 오우진 (2023).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5(특별호 하), 275-295.
<https://doi.org/10.31336/JTLR.2023.4.35.sp2.275>
- 유영서, 윤소현, 신정원, 김영석 (202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 교양교육연구, 17(5), 201-219.
<https://doi.org/10.46392/kjge.2023.17.5.201>
- 윤성혜, 송선희 (2020).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예·체능계열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4), 591-600.
<https://doi.org/10.5392/JKCA.2020.20.04.591>
- 장로사 (2023).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263-283. <http://doi.org/10.4275/KSLIS.2023.57.1.263>
- 전혜정, 최정윤, 방은숙, 김성봉 (2025).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국내 긍정심리자본 연구동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6(1), 376-385. <https://doi.org/10.5762/KAIS.2025.26.1.376>
- 정경숙 (2025).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직업존중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6(1), 832-840. <https://doi.org/10.5762/KAIS.2025.26.1.832>
- 정미옥 (2024). 3차원 서비스품질 모형을 적용한 공공도서관 서비스품질이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2), 289-316.
<https://doi.org/10.4275/KSLIS.2024.58.2.289>
- 정연, 이상무, 박미희 (2025). 헤어미용종사자의 희망, 낙관주의,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미용학회지, 31(1), 165-173. <https://doi.org/10.52660/JKSC.2025.31.1.165>
- 조은희, 문화진 (2019).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이중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9), 693-716.
<http://doi.org/10.22251/jlcci.2019.19.19.693>

- 지희진 (2025).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자기효능감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콘텐츠와산업*, 7(1), 45-50.
<https://doi.org/10.55387/JCI.2025.07.01.07>
- 최경환, 정명규 (2025). 태권도 전공 대학생이 지각한 대학교육서비스품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무예연구*, 19(1), 49-71.
<https://doi.org/10.51223/kosoma.2025.02.19.1.49-71>
- 최예인, 김나영, 김나현, 김채연, 박하경, 이송아, 김주아 (2025).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전공만족도, 그것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Nursing & Health Issues*, 30(1), 1-10.
<https://doi.org/10.33527/nhi2025.30.1.1>
- 통계청 (2023). 2023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보고서.
출처: https://kostat.go.kr/statDesc.es?act=view&mid=a10501010000&sttr_cd=S002006
- 한국경제인연합회 (2024). 2024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출처: https://www.fki.or.kr/kor/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5840&category=ST
- 홍보람, 김혜정 (2024). 사회복지사의 전문 직업적 이미지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0(2), 95-116.
<http://doi.org/10.18612/cnajes.2024.45.3.291>
- Avey, J. B. & Holley, E. (2024). Architect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s wit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rganizational Dynamics*, 53(4), 101082.
<https://doi.org/10.1016/j.orgdyn.2024.101082>
- Baroudi, S., Hojeij, Z., Meda, L., & Lottin, J. (2022). Examining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in online teaching during virtual field experience. *Cogent Education*, 9(1), 2133497. <https://doi.org/10.1080/2331186X.2022.2133497>
- Chu, Y., Zhang, Y., Wang, S., & Dai, H. (2022). Resilience mediates the influence of hope, optimism, social support, and stress on anxiety severity among Chinese patients with cervical spondylosis. *Frontiers in Psychiatry*, 13, 997541. <https://doi.org/10.3389/fpsyg.2022.997541>
- Evans, D. (2017). Categorizing the magnitude and frequency of exposure to uncivil behaviors: A new approach for more meaningful intervention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49(2), 214-222. <https://doi.org/10.1111/jnu.12275>
- Gerçek, M. & Elmas-Atay, S. (2024).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ffects on academic major satisfaction via career optimism.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24(2), 455-477. <https://doi.org/10.1007/s10775-022-09568-6>
- Gurley, L. E. (2018). Educators' preparation to teach, perceived teaching presence, and perceived teaching presence behaviors in blended and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Online learning*, 22(2), 197-220. <https://doi.org/10.24059/olj.v22i2.1255>

- Hackett, P. M. (1993). Modelling environmental concern: Theory and application. *Environmentalist*, 13(2), 117-120. <https://doi.org/10.1007/BF01905668>
- Jaime, E. (2023). Technical vocational livelihood work immersion, students' employability competencies, and satisfaction: Towards a proposed innovative implementation exemplars.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3(5), 1-1. <https://doi.org/10.5281/zenodo.8345217>
- Nauta, M. M. (2007). Career interests, self-efficacy, and personality as antecedents of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2), 162-180. <https://doi.org/10.1177/1069072706298018>
- Newman, A., Ucbasaran, D., Zhu, F. E. I., & Hirst, G. (2014). Psychological capital: A review and synthesi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5(S1), S120-S138. <https://doi.org/10.1002/job.1916>
- Schenkenfelder, M., Frickey, E. A., & Larson, L. M. (2020). College environment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Predicting academic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7(2), 265. <https://doi.org/10.1037/cou0000380>
- Starkey, L., Yates, A., Meyer, L. H., Hall, C., Taylor, M., Stevens, S., & Toia, R. (2009). Professional development design: Embedding educational reform in New Zealand.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5(1), 181-189. <https://doi.org/10.1016/j.tate.2008.08.007>
- Tambun, I. N. K. & Tondok, M. S. (2024). Psychology and culture: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capital of collective culture HERO (hope, efficacy, resilience, optimism) in the Kebo-Keboan tradition of using tribe, Banyuwangi. *Santhet: Jurnal Sejarah, Pendidikan, dan Humaniora*, 8(1), 247-256. <https://doi.org/10.36526/santhet.v8i1>
- Wang, S., Wang, Y., & Zhao, L. (2025). Effects of psychological resilience on online learning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s: The mediating role of academic burnout. *The Asia-Pacific Education Researcher*, 34(1), 395-409. <https://doi.org/10.1007/s40299-024-00862-1>
- Wray, E., Sharma, U., & Subban, P. (2022). Factors influencing teacher self-efficacy for inclusive educati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17, 103800. <https://doi.org/10.1016/j.tate.2022.103800>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ang, Ro-Sa (2023).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 behavior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1), 263-283. <http://doi.org/10.4275/KSLIS.2023.57.1.263>
- Cho, Eun-Hee & Moon, Hwa-Jin (2019).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job-seeking anxie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With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9), 693-716. <http://doi.org/10.22251/jlcci.2019.19.19.693>
- Choi, Kyung-Hwan & Jung, Myung-Kyu (2025). The effect of university education service quality perceived by Taekwondo major colleg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Korea Society Martial Arts: Journal of Martial Arts, 19(1), 49-71. <https://doi.org/10.51223/kosoma.2025.02.19.1.49-71>
- Choi, Ye-In, Kim, Na-Young, Kim, Na-Hyeon, Kim, Chae-Yeon, Park, Ha-Kyoung, Lee, Song-A, & Kim, Ju-Ah (2025). Influe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ollege major satisfaction, and gri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nursing students. Nursing and Health Issues, 30(1), 1-10. <https://doi.org/10.33527/nhi2025.30.1.1>
- Hong, Bo-Ram & Kim, Hae-Jung (2024). The impact of professional job imag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mong social work major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 50(2), 95-116. <http://doi.org/10.15820/khjss.2024.50.2.004>
- Jeong, Hye-Jeong, Choi, Jeong-Yun, Bang, Eun-Suk, & Kim, Sung-Bong (2025). Analysi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research trends in Korea using text min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6(1), 376-385. <https://doi.org/10.5762/KAIS.2025.26.1.376>
- Jeong, Kyeong-Sook (2025). The influence of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and job-esteem on carri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6(1), 832-840. <https://doi.org/10.5762/KAIS.2025.26.1.832>
- Jeong, Mi-Ok (2024). A study on the effect of public library service quality on user satisfaction and user loyalty according to Brady & Cronin's three-dimensional service quality Mod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8(2), 289-316. <http://doi.org/10.4275/KSLIS.2024.58.2.289>
- Ji, Hee-Jin (2025).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personalit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tents and Industry, 7(1), 45-50. <https://doi.org/10.55387/JCI.2025.07.01.07>
- Jung, Yeon, Lee, Sang-Mu, & Park, Mi-Hee (2025).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hope,

- optimism,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of hairdressing professio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31(1), 165-173.
<https://doi.org/10.52660/JKSC.2025.31.1.165>
- Kim, Dong-Il, Park, In-Hoo, & Chung, Geon (2024). Examining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behaviors based on career self-understanding, self-Efficacy, and optimism: A latent profile analysis.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5(3), 291-315.
<http://doi.org/10.18612/cnajes.2024.45.3.291>
- Kim, Ju-Ah (202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n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cartoon animation: Focusing on the motivation for choosing a major and occupation values. *Culture and Convergence*, 44(11), 335-346. <https://doi.org/10.33645/cnc.2022.11.44.11.335>
- Kim, Kyung-Lee & Lee, Hyun-Joo (2022).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6(2), 453-465. <https://doi.org/10.46392/kjge.2022.16.2.453>
- Kim, So-Ra (2021). Perceptions toward job changes due to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11), 528-542. <https://doi.org/10.5392/JKCA.2021.21.11.528>
- Kim, Youn-Min & Lee, Sun-Il (2021). The effect of major selecting motivation on satisfaction in major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7(1), 157-165. <https://doi.org/10.20878/cshr.2021.27.1.014>
- Korea Economic Association (2024). 2024 College Student Employment Awareness Survey. Available: https://www.fki.or.kr/kor/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5840&category=ST
- Nam, Mi-Hee & Jung, Myung-Kyu (2024).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anxiety among Taekwondo majors. *Journal of Sport for All*, 97, 229-240. <https://doi.org/10.51979/KSSLS.2024.07.97.229>
- National Strategy Portal (2023). Future of Jobs Report 2023. Available: <https://nsp.nanet.go.kr/>
- Oh, Woo-Jin (2023). The effects of satisfaction in major of undergraduate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grade level.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35(187), 275-295. <https://doi.org/10.31336/JTLR.2023.4.35.sp2.275>
- Park, Jin-Young (2023, November 28). [Reporter's Eye] The Decline in the Employment Rate of Young People under 20 is becoming Entrenched. What are the Causes and Solutions? *News Today*. Available: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31128500074>
- Ryu, In-Pyong, Kang, Dong-Won, & Lee, Jae-Gon (2019). The effect of the quality of education

- service of college students on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ourism Research*, 44(3), 81-106. <https://doi.org/10.32780/ktidoi.2019.44.3.81>
- Shin, Hyeon-Hee & Jang, Su-Hyun (2022).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resilience on adjustment of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Korea Convergence Society*, 13(2), 321-329. <http://doi.org/10.15207/JKCS.2022.13.02.321>
- Shin, Kyu-Lee & Sohn, Young-Mi (2020). Validation of the effect of leisure sports participation on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meaning of life and positive affect.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44(3), 127-139. <http://doi.org/10.26446/kjlrp.2020.9.44.3.127>
- Sim, Sun-Sook & Joung, Hye-Young (2023).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resilience and career barrier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7(12), 2178-2186. <https://doi.org/10.33097/JNCTA.2023.07.12.2178>
- Sin, Tae-Hwa (2023).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motivation to choose their major on major satisfaction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The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26(2), 239-259. <https://doi.org/10.47584/jfm.2023.26.2.239>
- Song, Jung-Myung & Yoo, Dong-Hyun (201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with major, learning immer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according to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7(3), 209-222. <https://doi.org/10.35159/kjss.2018.06.27.2.209>
- Yang, Jin-Hee & Kim, Bong-Whan (2023).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identity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1(2), 57-71.
- Yoo, Young-Seo, Yun, So-Hyun, Shin, Jung-Won, & Kim, Young-Seok (2023).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college student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grit.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7(5), 201-219. <https://doi.org/10.46392/kjge.2023.17.5.201>
- Yoon, Sung-Hae & Song, Sun-Hee (2020). The mediation effect of satisfaction with major regarding the e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Focused on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4), 591-600. <https://doi.org/10.5392/JKCA.2020.20.04.591>

